

Issue Comment

- ✓ 신종자본증권 발행, 자사주 취득, 신한금투 증자 공시
- ✓ 신한금투 초대형 IB 화, 오렌지라이프 및 아시아신탁 인수 등으로 단계적인 비은행 확대가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은행주

신한지주: '비은행 다변화'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주

- 신한지주는 5/10 일 동시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시. 1) 완전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6,600 억원 출자 (예정일 2019.6.4), 2) 후순 위채 5 억달러 발행, 3) 신종자본증권 4,000 억원 발행 (5 년 콜옵션), 4) 4,000 억원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(2019.5.13~2019.11.13) 체결 등임

- 2018 년 하반기부터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, 신한지주는 2018 년 8 월 9,580 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신규 발행했고, 2019 년 2 월 전환우선주(CPS) 7,500 억원 발행을 결의해 4 월 발행을 완료한 바 있음. 이번 공시를 포함하면 2H18 부터 CPS와 Hybrid 로 총 2.1 조원을 조달

- 신한지주가 조속한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 인수(완전자회사화)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, 이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사주 취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 신한지주가 2018 년 9 월 체결한 2,000 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은 2019 년 4 월 9 일자로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, 향후 6 개월 간 두 배 규모인 4,000 억원의 자사주 취득(발행주식수의 1.7% 예상)이 이어질 예정

- 오렌지라이프의 주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, 자사주 취득 완료 후 주식교환으로 인수 가능한 오렌지라이프 지분은 22% 수준으로 추정. 남은 지분을 공개매수로 가져온다고 가정할 때, KB 금융이 KB 손보 주주에게 제시한 프리미엄 18%를 반영하면 필요한 자금은 5,200 억원 수준임.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출자를 감안해도 자금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

- 한편 신한금융투자의 2018 년 말 자기자본은 3 조 3,726 억원으로 이번 증자 반영 시 4 조원을 상회해 초대형 IB 요건에 부합하며, 발행어음 사업 인가 등으로 수익성 확대가 기대됨. 오렌지라이프의 이익 추가 반영 및 아시아신탁 인수에 더해 단계적인 비은행 다변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주라고 평가함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